One Shinhan

3월 1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2.26	2.19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168.47	1,173.50	↓ -0.43	↑ 5.85	659.21 '20/03/24	1,194.20 '21/01/15
인니	자카르타종합	6,241.80	6,231.93	↑ 0.16	↑ 4.39	3,937.63 '20/03/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49,099.99	50,889.76	↓ -3.52	↑ 2.82	25,981.24 '20/03/23	52,154.13 '21/02/15
중국	상해종합	3,509.08	3,696.17	↓ -5.06	↑ 1.04	2,660.17 '20/03/23	3,696.17 '21/02/19
	심천종합	2,293.69	2,468.66	↓ -7.09	↓ -1.53	1,631.88 '20/03/23	2,468.66 '21/02/19
홍콩	H	11,247.21	12,106.77	↓ -7.10	↑ 4.74	8,559.64 '20/03/19	12,228.63 '21/02/17
	항셍	28,980.21	30,644.73	↓ -5.43	↑ 6.42	21,696.13 '20/03/23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012.95	3,107.62	↓ -3.05	↑ 4.85	1,457.64 '20/03/19	3,208.99 '21/01/25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2.26	2.19	전주대비(bp)	전년말 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39	2.27	↑ 12.80	↓ -18.60	2.15 '20/03/09	3.65 '20/04/01
인도네시아	6.61	6.55	↑ 5.70	↑ 72.30	5.89 '20/12/30	8.38 '20/03/24
인도	6.23	6.14	↑ 9.80	↑ 36.80	5.75 '20/05/28	6.50 '20/04/13
중국	3.28	3.27	↑ 1.30	↑ 13.30	2.48 '20/04/08	3.36 '20/11/19
한국	1.97	1.88	↑ 9.30	↑ 24.80	1.26 '20/03/09	1.97 '21/02/26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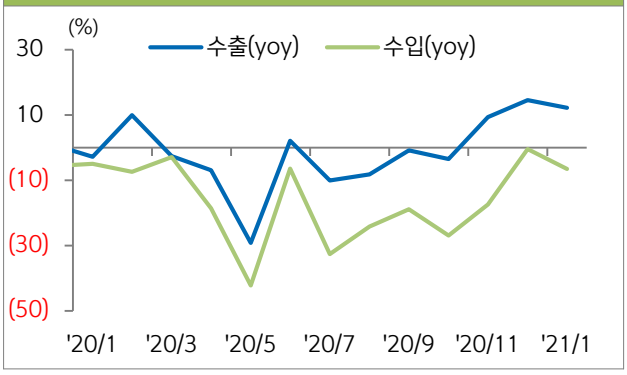
구분	2.26	2.19	전주대비(%)	전년말 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18.00	23,015.00	↑ 0.01	↓ -0.35	22,970.00 '21/02/08	23,637.00 '20/03/30
달러-루피아 (IDR)	14,235.00	14,065.00	↑ 1.21	↑ 1.32	13,878.00 '20/06/05	16,575.00 '20/03/23
달러-루피 (INR)	73.47	72.65	↑ 1.13	↑ 0.55	71.56 '20/02/27	76.87 '20/04/16
달러-위안 (CNY)	6.47	6.46	↑ 0.25	↓ -0.82	6.43 '21/01/29	7.17 '20/05/27
달러-원 (KRW)	1,123.53	1,105.82	↑ 1.60	↑ 3.41	1,081.81 '20/12/04	1,285.73 '20/03/19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1월까지 이어진 무역수지 흑자 흐름. 美 금리 상승 국면에서 안전판이 되어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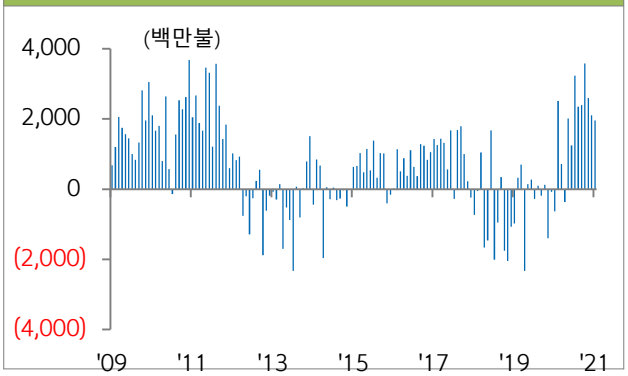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의 1월 수출은 전년대비 +12.24%, 수입은 전년대비 -6.49%를 기록하였음. 수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한편 1월까지 이어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국내 소비, 투자 부진 등의 영향으로 수입 부진세가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의 1월 무역수지는 19.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2020년 연간으로 217억 달러 수준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에 이어 2021년에도 무역수지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는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원자재 수입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를 경험하고 있음**. 니켈 가격은 2014년 이후 7년만에 톤당 2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 생산 및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팜오일의 경우 대두가격을 중심을 한 식물유 작물들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8~2012년의 원자재 상승 사이클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는데, 이번 원자재 가격 상승 가운데 니켈, 구리 등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는 글로벌 그린 뉴딜 인프라 추진에 힘입은 전기차, 풍력, 태양광 등에서 주요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강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지난 4차 원자재 슈퍼사이클('08~'11)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OPEC+의 여분 생산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유가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석유제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하락 요인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 **원자재 수출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 흑자의 흐름이 이어진다면 최근의 美 금리 상승에 따른 신흥국 불안 가능성에서도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인도네시아 전년대비 수출입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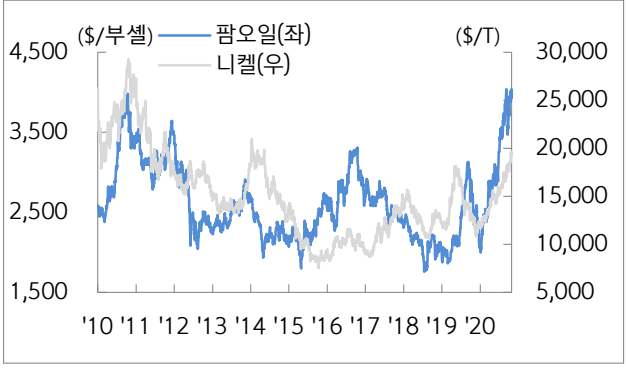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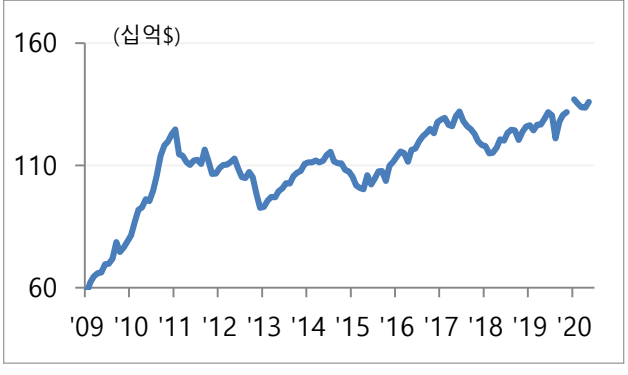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원자재 가격 추이



자료 : Bloomberg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 추이



자료 : Bloomberg

주요 뉴스

중앙은행, 은행들에게 빠른 디지털 전환을 촉구

❖ **요약 및 시사점**

감독청이 디지털 은행의 실립 기준을 만들어 최소자본요구를 낮추어 활성화하는 한편 중앙은행은 기존의 은행들이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음. 국영은행 뿐만 아니라 민간 은행 소형 은행 등 전체적인 은행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대중들의 은행산업 접근을 높이고자 함

-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는 10~15개 은행들이 디지털화을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에게 디지털화를 빠르게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단순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를 진행하도록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총재는 말하였음. 이들 15개 은행 가운데는 국영은행인 BRI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는 말하였음. 중앙은행은 금융감독청과 은행산업 부문의 디지털화를 최대한으로 늘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일단 중앙은행은 지불 결제 부분에 대한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모든 은행들이 QRIS를 이용해서 소매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였음.
- 한편 감독청은 모든 은행들이 사업 체계를 디지털화하게 되면 코로나19 와중에도 대중들에게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디지털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를 위해 감독청과 중앙은행은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디지털 금융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음.
- 최근 감독청은 디지털 은행의 설립 요건과 관련한 최소자본 규제를 10조 루피아로 정하였음. 이와 관련한 디지털 은행 관련 법안은 아직 초안 단계이지만 규정을 완료짓기 위해서 감독청이 여러 은행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나중에는 최소 자본 규정과 관련된 것들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인니 중앙은행, 비트코인이 적법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다른 중앙은행들의 고민과 마찬가지고 최근 가격이 급등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적법 결제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놓았음.
각국들은 비트코인 대신 중앙은행이 발행 및 통제하는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은행 총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사용이 법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불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하였음. 중앙은행 총재는 2/18에 비트코인 가격이 1비트코인 당 7.41억 루피아에 달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내렸음.
-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이 법적 지불수단으로 인정 및 허용되지 않는다고 초기부터 경고해왔다고 말하였음. 인도네시아 헌법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지불 결제의 수단으로는 루피아화만을 공인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폐(동전, 은행권, 디지털화폐 등)는 루피아화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음.
- 중앙은행 총재는 가까운 미래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통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내놓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음. 인니 중앙은행은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과 이러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공동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CBDC의 발행을 통해 이를 은행들에 배분하고 핀테크 업체들을 통해 시중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총재는 말하였음.
-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비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판정한 반면, 인도네시아 무역부의 감독 위원회에서는 비트코인을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다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음.

(출처 : Antara News)

금융감독청, 이슬람 은행들의 변혁을 요구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이 샤리아 금융을 수행하는 이슬람 은행들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현실적으로는 샤리아 금융과 관련한 지식을 가진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이슬람 은행들의 디지털화 부족으로 인해 관리, 감독에 필요한 데이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

- 금융감독청은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이슬람은행들에게 변혁을 요구하고 있음. 비즈니스 모델의 변경이나 상품 다양화 및 부족한 인적 자원의 보강 및 인적 자원 질적 개선 등의 요구를 하고 있음. 샤리아 은행 상품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다양하고 질적으로 개선된 상품을 보여줘야한다고 감독청의 은행감독 담당 부문장이 말하였음.
- 감독청에게 있어서 샤리아 은행 부문에서의 인도네시아의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부문에서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큰 과제임. 감독하고 허가하는 것에 있어서 샤리아 은행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임. 낮은 샤리아 이해도와 샤리아 은행들에 대한 디지털화 부진으로 인한 관리 감독 자료 부재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감독청은 이슬람 은행들에 대해서 독창적인 상품들을 만들어 내고, 이슬람 경제 및 금융 시스템과 관련한 최적화를 독려하고 있음

(출처 : Antara News)

1월 재정 지출은 4.2% 증가했으며 재정적자는 GDP의 0.26% 기록

MINISTRY OF FINANCE
REPUBLIC OF INDONESIA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성장률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재정 지출을 초기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올해 재정적자를 큰 폭을 늘리는 예산을 구상해두었으나 예상된 만큼 소득세 수입은 부진을 기록하고 있고, 관세 등이 보완해주고 있는 상황

- 인도네시아의 1월 정부 지출은 전년의 139.9조 루피아 대비 4.2% 증가한 145.8조 루피아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정부 지출 예산금액 2,750조 루피아의 5.3%를 지출한 것임. 재무장관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기부터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하였음.
- 1월 지출액 가운데 94.7조 루피아는 중앙 정부의 지출로 중앙 정부 지출 예산 1,954.5조 루피아의 4.8% 수준이고, 여기에는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48조 루피아 지출과 비 정부기관의 46.6조 루피아 지출이 포함되어있음.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지출 가운데 인건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전년과 동일하거나 별 차이가 없지만 상품 및 자본재에 대한 지출과 사회보장성 지출은 빠르게 늘리고 있는 상황임. 자본재에 대한 지출 가운데 행정 및 주택부의 지출이 8.6조 루피아를 차지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 1.6조 루피아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 한편, 인도네시아의 1월 재정적자는 45.7조 루피아(GDP대비 0.2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재무장관은 덧붙였음. 재정 수입은 100.1조 루피아였으나 지난해 1월 대비 세수수입은 15.3% 줄어든 68.5조 루피아였고, 반면 관세 등 수입은 12.5조 루피아로 전년의 4.5조 루피아 대비 175.3% 증가하였음. 세외 수입은 19.1조 루피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2.9% 감소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경제단체 : 차량 및 주택 세금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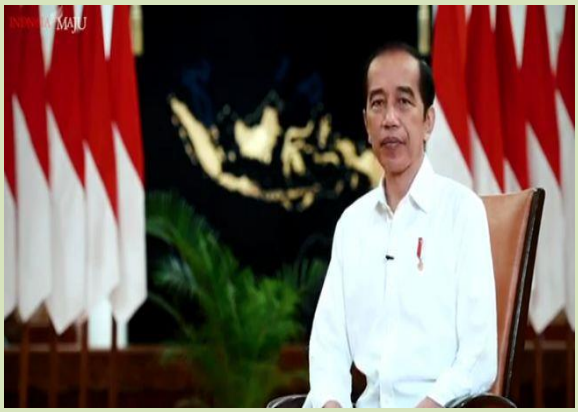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경영인 협회는 코로나19 충격에서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차량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 등에 대한 세금 완화를 언급하였음. 세금완화를 통해 물품 서비스 가격을 낮추어서 중산층들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이에 따른 소비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제안임

- 차량 및 주택 세금 완화가 코로나19로 영향받은 경제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가 말하였음.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이면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임.
- 차량에 대한 사치세 완화를 통해서 차량의 구매 가격을 낮추고 중산층으로 하여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으며, 부동산, 호텔, 까페 등의 부문에 대해서도 세금 완화를 해주면 대중들의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판단임. 이들 부문의 회복이 개선되면 전체 경제에도 마중물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면 경제 회복을 위해 구상해둔 경제 정책들을 더 빠르게 집행하여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Apindo는 판단하고 있음. 조코위 대통령도 보건 문제와 경제 문제의 양립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 보건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의 정상화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판단임.

(출처 : Antara News)

조코위 대통령, 기관들의 2021년에 성장률 전망 상회를 위한 단합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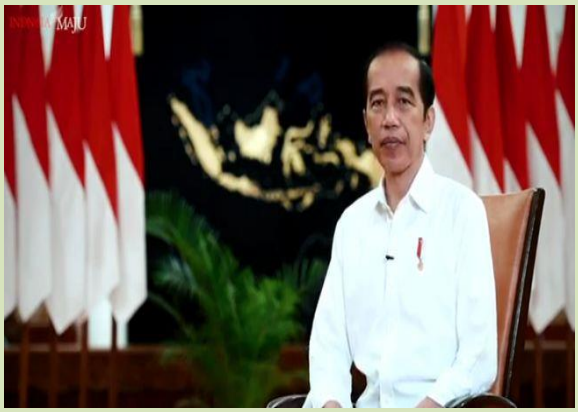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단합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면서 민간부문이 고용 확대에 나서준다면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4~5% 수준의 성장률보다 개선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단합하여 보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면 글로벌 주요기관들이 4~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하였음.
-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이 마스크 착용, 물리적 거리두기 유지, 손씻기 등 개인 보건 조치와 빠른 테스트, 추적, 치료의 3T에 기반한 보건 지침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 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음.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국민의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규모의 백신 접종을 수행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백신 접종을 선도하는 국가로써 가능한 모든 백신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통령은 강조하였음. 이를 통해 조만간 코로나19로 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희망을 불어넣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에 372조 루피아의 재정 예산을 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해 잡아두었으며, 여기에는 가족 희망 프로그램(PKH), 급여 보조, 사전급여 카드, 노동집약 프로그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은행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종류의 부양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조코위 대통령은 고용의 장기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체 및 민간 부문의 공헌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하였음. 노동집약프로그램과 정부 지출 등의 조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용 재창출과 확대는 산업체 및 민간 부문에서 공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였음. 대통령은 현재의 사업을 갱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고용을 늘릴 수 있다고 하였음.
- 이러한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자본은 은행, 비은행 부문 및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신용 공급이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풍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조코위 대통령, 국권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연결성을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인들이 국내 물품 및 서비스를 국내의 기술을 가지고 더 많이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고 알리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발전 및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말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디지털 연결성이 글로벌화와 극한 경쟁심화 가운데서 인도네시아 국권을 높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였음. 대통령은 디지털 자주성과 국권이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변혁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하였음.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더라도 국내의 주요 부문들을 부양해주고 국내 제품들의 효용을 높이며, 최근의 디지털 기술들이 모든 인도네시아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디지털 변혁을 통해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국가 및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 거래에서 10~15%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더 많이 전자상거래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서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위해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가에서 교육 훈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음. 사전 고용 카드 프로그램 등이 이를 위한 기반이라고 하였음.

(출처 : Antara News)